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0년 10월 광공업·서비스업 모두 전년동월대비 생산 증가

○ 2010년 10월 광공업 생산은 의복 및 모피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기계장비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13.5% 증가함(조업영향을 감안한다면 9.4% 증가한 것임). 반면 서비스업은 부동산·임대, 전문·과학·기술, 교육 등은 감소하였으나 예술·스포츠·여가, 운수,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13.6%), 기계장비(38.3%), 자동차(21.0%) 등에서는 증가한 반면, 의복 및 모피(-8.8%), 가죽 및 신발(-1.4%) 등에서는 감소함.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12.8%), 운수(10.7%),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7.3%) 등에서 증가한 반면, 부동산·임대(-23.1%), 전문·과학·기술(-5.6%), 교육(-0.2%) 등에서는 감소함.

○ 2010년 10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4.2%,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가전제품, 승용차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14.2%, 의복,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에서 12.6% 증가한 반면, 차량연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는 -4.7% 감소함.

－ 설비투자는 자동차, 운송장비 투자는 줄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종별로는 건축공사,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 실적이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5% 감소함. 건설수주(경상)는 건축공사 발주부진과 토목공사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59.6%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3p 하락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4%로 전월보다 1.5%p 하락함. 이는 전년도 선행종합지수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와 금월 선행종합지수의 하락에서 기인함.

◆ 2010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3.3% 상승(생활물가지수 3.6% 상승)

○ 2010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1(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6% 감소, 전년동월대비 3.3%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축소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통신부문만 전년동월대비 0.9%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에서 11.2%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0월	1/4	2/4	3/4	10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0.2	25.8	19.5	11.8	13.5(-4.2)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0.5	26.8	20.2	12.1	13.6(-4.3)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0.6	21.8	17.2	11.2	13.5(-3.4)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0.9	21.2	15.4	8.2	10.9( 6.4)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0.4	22.5	19.7	15.1	16.8( 4.5)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0.5	5.7	4.0	2.3	3.0( 0.5)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8	9.9	4.9	7.4	4.2( 0.2)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0.5	25.5	24.5	27.7	10.2(-9.5)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8	2.4	2.7	2.6	2.9	3.3(-0.6)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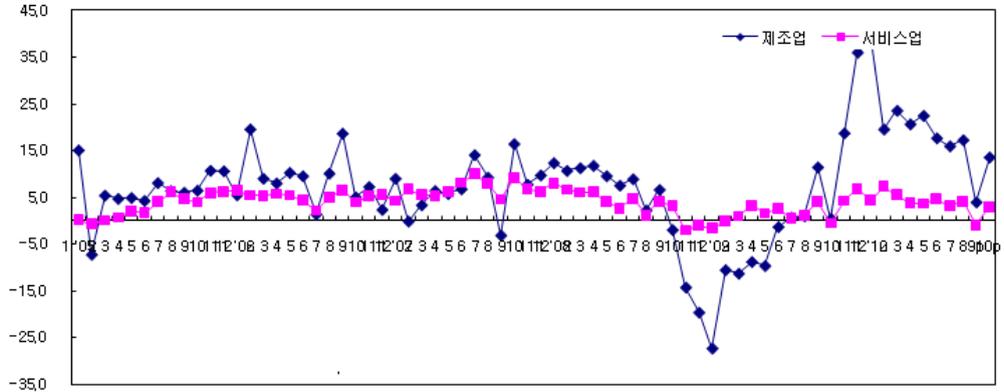
3) 물가지수는 11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 2010년 11월 생활물가지수는 118.9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1.2% 하락, 전년동월대비 3.6% 상승함.
- 2010년 11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1.3% 하락, 전년동월대비 37.4%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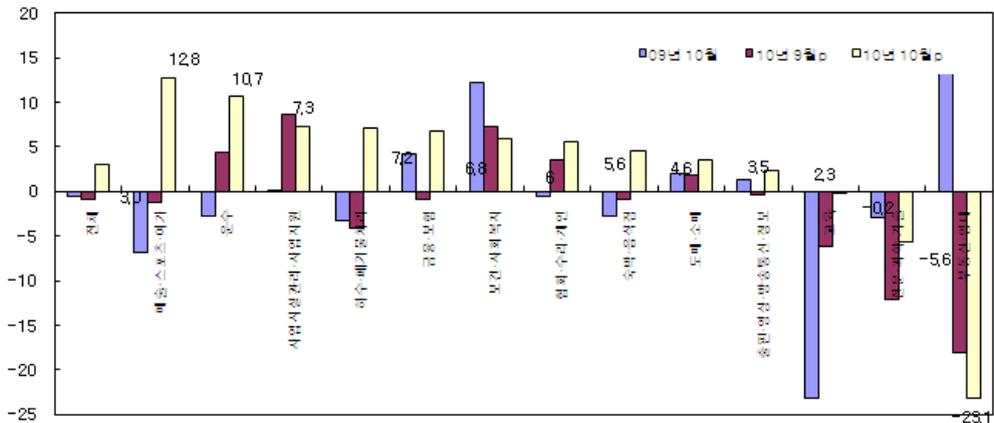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2010. 11), 『2010년 10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0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00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9천 명(1.4%)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603천 명으로 223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01천 명으로 126천 명(1.2%) 증가하였음.
- 2010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1%p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73.4%)이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50.0%)은 전년동월대비 동일함.
- 2010년 10월 중 고용률은 59.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8%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2010년 10월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섬(그림 3 참조).
- 2010년 10월 중 취업자는 24,1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6천 명(1.3%)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0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8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0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7천 명(0.9%) 증가하였음(그림 4 참조).
- 2010년 10월 중 실업자는 8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천 명(4.2%)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3%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함.

〈표 2〉 최근의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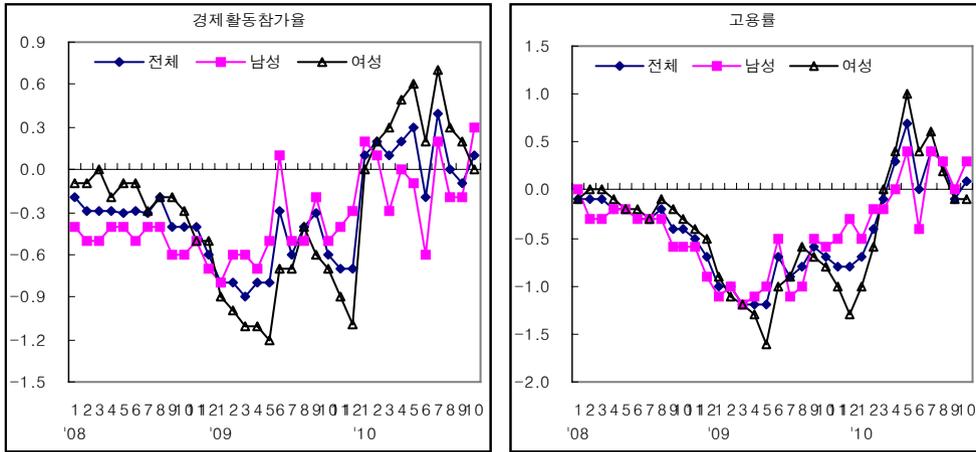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9월	10월
경제활동인구	23,812 (-0.2)	24,680 ( 0.2)	24,637 ( 0.5)	24,448 ( 0.2)	24,655 ( 0.3)	24,166 ( 1.5)	25,038 ( 1.5)	24,993 ( 1.4)	24,911 ( 1.1)	25,004 ( 1.4)
참가율	59.7	61.7	61.3	60.7	61.3	59.8	61.8	61.5	61.2	61.4
취업자	22,904 (-0.6)	23,737 (-0.6)	23,751 ( 0.0)	23,631 ( 0.0)	23,856 ( 0.0)	23,037 ( 0.6)	24,170 ( 1.8)	24,120 ( 1.6)	24,054 ( 1.0)	24,172 ( 1.3)
고용률	57.4	59.3	59.1	58.7	59.3	57.0	59.6	59.3	59.1	59.4
실업자	908	943	886	817	799	1,130	868	873	857	832
실업률	3.8	3.8	3.6	3.3	3.2	4.7	3.5	3.5	3.4	3.3
비경제활동인구	16,088 ( 3.3)	15,347 ( 3.0)	15,528 ( 2.5)	15,829 ( 3.0)	15,581 ( 2.9)	16,254 ( 1.0)	15,493 ( 1.0)	15,656 ( 0.8)	15,770 ( 1.3)	15,711 ( 0.8)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 통계청(2010. 11), 『2010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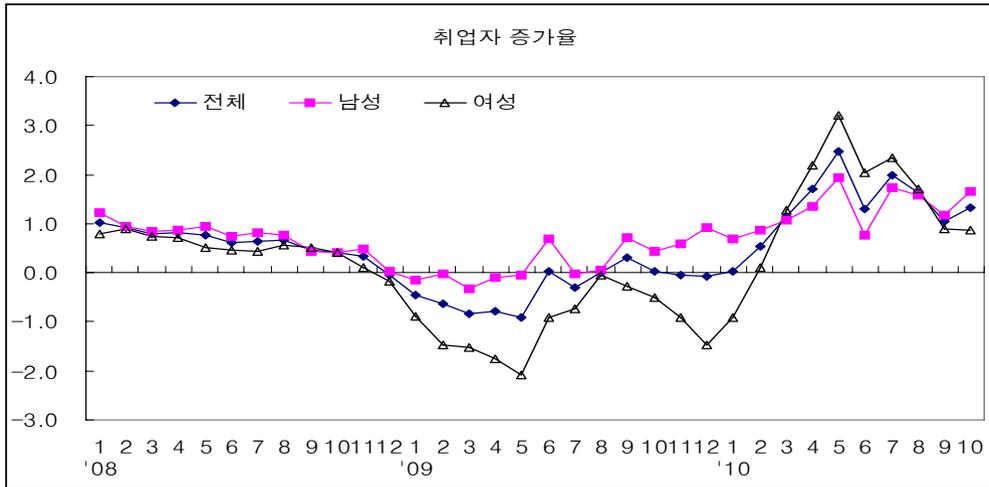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51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1.0%) 감소한 반면, 여성 실업자는 31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8천 명(13.8%) 증가함.
- 실업률은 남성이 3.5%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함.

○ 2010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71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0천 명(0.8%)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0.3%)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0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4천 명(1.1%)이 증가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5천 명 증가함.

◆ 제조업 · 건설업 취업자 증가세 지속

- 2010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241천 명, 6.2%), 건설업(94천 명, 5.6%), 전기 · 운수 · 통신 · 금융업(84천 명, 3.0%), 사업 · 개인 · 공공 서비스업(16천 명, 0.2%)에서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 · 숙박업(-59천 명, -1.1%), 농림어업(-55천 명, -3.0%)에서는 감소함.
- 2009년 하반기 이후 플러스 증가로 돌아선 제조업의 취업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가 지속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산업	22,904 (-0.6)	23,737 (-0.6)	23,751 ( 0.0)	23,631 ( 0.0)	23,856 ( 0.0)	23,037 ( 0.6)	24,170 ( 1.8)	24,120 ( 1.6)	24,054 ( 1.0)	24,172 ( 1.3)
농림어업	1,398 ( 1.0)	1,817 (-1.3)	1,799 (-1.4)	1,579 (-6.9)	1,845 (-1.5)	1,235 (-11.7)	1,733 (-4.6)	1,754 (-2.5)	1,757 (-3.2)	1,790 (-3.0)
제조업	3,850 (-4.1)	3,843 (-3.8)	3,791 (-3.6)	3,862 (-1.2)	3,858 (-2.2)	3,911 ( 1.6)	4,015 ( 4.5)	4,053 ( 6.9)	4,062 ( 6.6)	4,098 ( 6.2)
건설업	1,705 (-2.5)	1,772 (-6.0)	1,699 (-5.7)	1,704 (-5.9)	1,686 (-0.8)	1,644 (-3.6)	1,816 ( 2.5)	1,791 ( 5.4)	1,773 ( 2.8)	1,780 ( 5.6)
도소매 및 음식 · 숙박업	5,589 (-2.0)	5,534 (-2.4)	5,511 (-2.8)	5,511 (-2.6)	5,453 (-3.1)	5,532 (-1.0)	5,461 (-1.3)	5,443 (-1.2)	5,375 (-1.7)	5,394 (-1.1)
사업 · 개인 · 공공 서비스업 및 기타	7,618 ( 3.2)	7,984 ( 4.5)	8,175 ( 5.9)	8,149 ( 4.6)	8,234 ( 5.6)	7,859 ( 3.2)	8,294 ( 3.9)	8,244 ( 0.9)	8,240 ( 0.6)	8,250 ( 0.2)
전기 · 운수 · 통신 및 금융업	2,722 (-2.6)	2,765 (-1.8)	2,753 (-0.9)	2,802 ( 1.8)	2,757 ( 0.4)	2,834 ( 4.1)	2,831 ( 2.4)	2,816 ( 2.3)	2,828 ( 2.1)	2,841 ( 3.0)

주 :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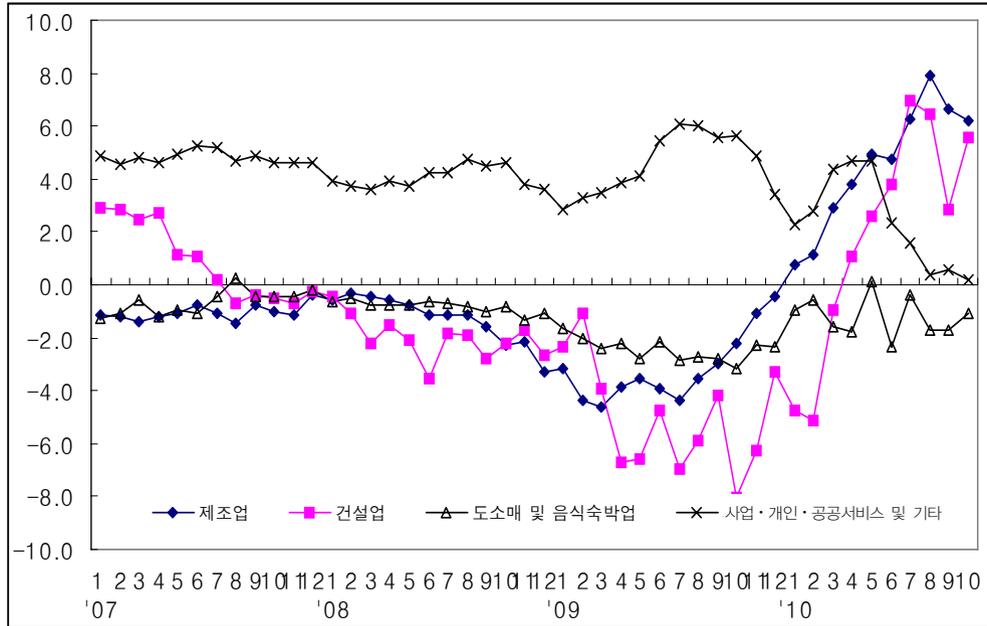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 · 개인 · 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0. 11), 『2010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한편, 2010년 5월 이후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의 증가 추세 둔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짐(그림 5 참조).

◆ 상용근로자 지속적으로 증가

- 2010년 10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94천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72천 명(-2.4%)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17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8천 명(2.9%)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280천 명으로 652천 명(6.8%)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89천 명으로 81천 명(-1.6%)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809천 명으로 84천 명(-4.4%) 감소하였음.
  - 상용근로자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그림 6 참조).
- 2010년 10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87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4천 명(3.7%),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030천 명으로 181천 명(0.9%)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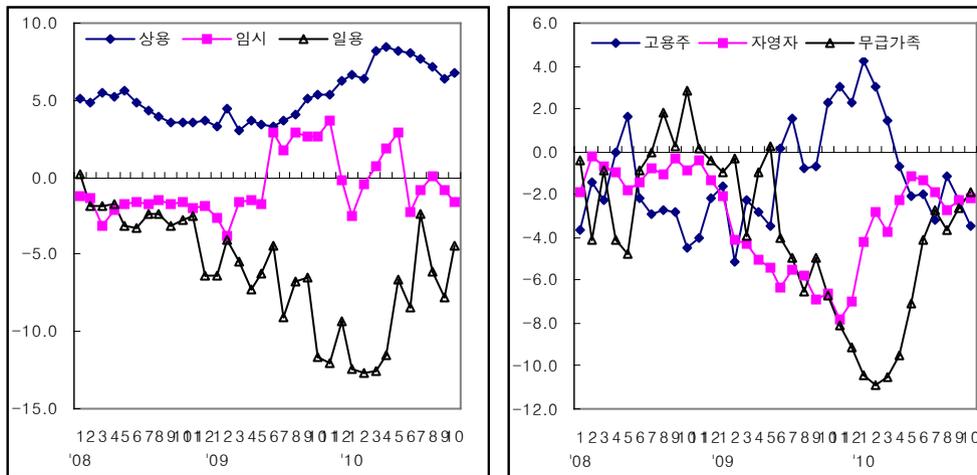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체	22,904 (-0.6)	23,737 (-0.6)	23,751 ( 0.0)	23,631 ( 0.0)	23,856 ( 0.0)	23,037 ( 0.6)	24,170 ( 1.8)	24,120 ( 1.6)	24,054 ( 1.0)	24,172 ( 1.3)
비임금근로자	6,877 (-3.1)	7,212 (-4.1)	7,166 (-4.7)	6,952 (-5.3)	7,166 (-4.9)	6,638 (-3.5)	7,023 (-2.6)	6,994 (-2.4)	6,951 (-2.3)	6,994 (-2.4)
자영업주	5,620 (-3.4)	5,787 (-4.7)	5,776 (-4.6)	5,600 (-4.7)	5,770 (-4.4)	5,514 (-1.9)	5,696 (-1.6)	5,646 (-2.3)	5,605 (-2.3)	5,624 (-2.5)
무급가족종사자	1,258 (-1.8)	1,425 (-1.6)	1,390 (-5.5)	1,292 (-7.9)	1,397 (-6.7)	1,124 (-10.6)	1,327 (-6.9)	1,348 (-3.0)	1,346 (-2.6)	1,370 (-1.9)
임금근로자	16,027 ( 0.5)	16,525 ( 1.1)	16,585 ( 2.2)	16,678 ( 2.4)	16,690 ( 2.3)	16,398 ( 2.3)	17,148 ( 3.8)	17,126 ( 3.3)	17,103 ( 2.5)	17,178 ( 2.9)
상용근로자	9,157 ( 3.6)	9,294 ( 3.5)	9,487 ( 4.2)	9,621 ( 5.7)	9,628 ( 5.4)	9,808 ( 7.1)	10,060 ( 8.2)	10,158 ( 7.1)	10,217 ( 6.4)	10,280 ( 6.8)
임시근로자	4,928 (-2.7)	5,136 (-0.1)	5,174 ( 2.5)	5,167 ( 2.1)	5,170 ( 2.7)	4,892 (-0.7)	5,179 ( 0.8)	5,148 (-0.5)	5,106 (-0.9)	5,089 (-1.6)
일용근로자	1,942 (-5.3)	2,094 (-6.0)	1,924 (-7.5)	1,891 (-11.1)	1,892 (-11.7)	1,699 (-12.5)	1,909 (-8.8)	1,820 (-5.4)	1,780 (-7.8)	1,809 (-4.4)
36시간 미만	3,092 (11.6)	2,997 (-1.9)	3,390 (-33.9)	2,961 ( 4.5)	2,768 ( 7.7)	4,851 (56.9)	3,197 ( 6.7)	3,329 (-1.8)	3,019 ( 2.5)	2,871 ( 3.7)
36시간 이상	19,351 (-2.7)	20,480 (-3.0)	19,894 ( 9.7)	20,404 (-0.7)	20,848 (-0.9)	17,671 (-8.7)	20,705 ( 1.1)	20,362 ( 2.4)	20,762 ( 0.9)	21,030 ( 0.9)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0. 11), 『2010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통계청, KOSIS.

◆ 30세 이상 및 고졸 이상 학력의 실업률 증가

- 2010년 10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29세는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모두에서는 증가함.
  - 2010년 10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15~19세(5.8%, -2.2%p), 20대(7.1%, -0.3%p)에서 감소한 반면, 30대(3.4%, 0.1%p), 40대(2.4%, 0.2%p), 50대(2.3%, 0.2%p), 60세 이상(1.8%, 0.5%p)에서는 증가함.
  - 학력별 실업률은 중졸 이하(2.0%, 0.0%p)는 전년동월대비 동일한 반면, 고졸(4.0%, 0.1%p)과 대졸 이상(3.4%, 0.1%p)은 증가함.
- 2010년 10월 중 전체 실업자 832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97천 명으로 25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9월	10월
전 체	908(3.8)	943(3.8)	886(3.6)	817(3.3)	799(3.2)	1,130(4.7)	868(3.5)	873(3.5)	857(3.4)	832(3.3)
15~29세	368(8.6)	351(8.0)	350(8.1)	320(7.6)	311(7.5)	408(9.5)	332(7.7)	323(7.6)	298(7.2)	288(7.0)
30~39세	227(3.7)	237(3.9)	213(3.5)	202(3.3)	198(3.3)	234(3.9)	217(3.6)	213(3.5)	210(3.5)	205(3.4)
40~49세	166(2.5)	176(2.6)	160(2.4)	151(2.3)	150(2.2)	192(2.9)	154(2.3)	165(2.5)	179(2.7)	165(2.4)
50~59세	108(2.4)	127(2.7)	118(2.5)	104(2.2)	100(2.1)	150(3.2)	105(2.1)	113(2.3)	114(2.3)	119(2.3)
60세 이상	39(1.6)	53(1.9)	46(1.6)	41(1.5)	40(1.3)	146(5.8)	61(2.1)	59(2.0)	57(1.9)	55(1.8)
중졸 이하	143(2.9)	141(2.6)	116(2.2)	119(2.3)	105(2.0)	241(5.1)	131(2.5)	131(2.5)	114(2.2)	107(2.0)
고졸	438(4.5)	459(4.6)	460(4.6)	393(4.0)	384(3.9)	493(5.0)	386(3.8)	408(4.0)	405(4.0)	397(4.0)
대졸 이상	327(3.6)	343(3.7)	310(3.3)	306(3.2)	310(3.3)	396(4.2)	352(3.6)	334(3.5)	339(3.5)	328(3.4)
취업무경험 실업자	47	38	37	36	27	57	46	35	26	35
취업유경험 실업자	861	905	849	781	772	1,072	823	838	831	797

주: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0. 11), 『2010년 10월 고용동향』.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임금동향

### ◆ 2010년 3/4분기 임금, 1/4분기에 이후 전년보다 높은 상승률 지속

- 2010년 3/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46천 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7.8%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 증가율은 4.6%인데 반해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 증가율은 각각 13.8% 및 11.3%를 기록하여 임금상승세를 주도
  - 비상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6.2% 상승한 949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1/4분기 2.4%에 그친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치임.
  - 경기회복으로 인해 임금상승률은 2009년 4/4분기 이후 비교적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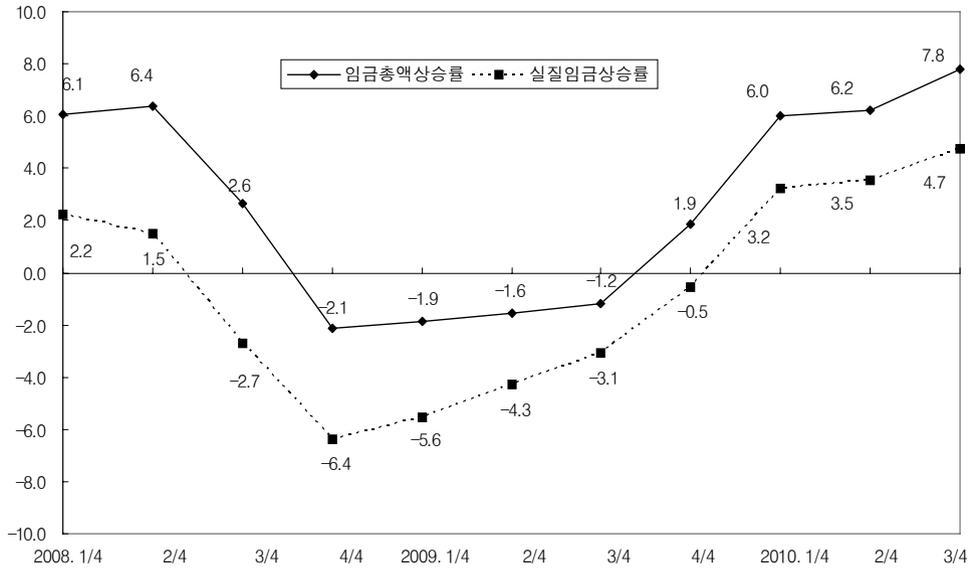
(단위 : 천 원/월, 2005=100.0, %)

	2007	2008	2009				2010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전체 근로자	2,561	2,640	2,622	2,612	2,524	2,641	2,711	2,769	2,680	2,846	
임금총액	( - )	( 3.1)	(-0.7)	( -1.9)	( -1.6)	(-1.2)	( 1.9)	( 6.0)	( 6.2)	( 7.8)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2,716	2,810	2,795	2,753	2,684	2,819	2,915	2,922	2,834	2,996
	정액 급여	( - )	( 3.4)	(-0.5)	( -2.1)	( -2.3)	(-0.8)	( 2.6)	( 6.1)	( 5.2)	( 6.3)
	초과 급여	2,026	2,154	2,166	2,142	2,156	2,163	2,205	2,244	2,258	2,261
	특별 급여	( - )	( 6.3)	( 0.6)	( 1.9)	( -0.7)	( 0.7)	( 0.5)	( 4.7)	( 4.7)	( 4.6)
비상용근로자	165	163	156	139	151	164	170	170	187	187	
	초과 급여	( - )	(-1.1)	(-4.1)	(-17.4)	(-10.9)	( 4.0)	( 9.2)	(22.3)	(24.0)	(13.8)
특별 근로자	525	493	472	472	386	492	539	508	389	548	
	특별 급여	( - )	(-6.2)	(-4.2)	(-12.5)	( -5.0)	(-8.2)	(10.0)	( 7.7)	( 0.8)	(11.3)
비상용근로자	904	855	830	829	806	817	867	849	929	949	
임금총액	( - )	(-5.5)	(-2.9)	( -6.5)	( -1.3)	(-7.2)	( 3.7)	( 2.4)	(15.4)	(16.2)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443	2,406	2,324	2,341	2,239	2,331	2,389	2,416	2,318	2,441	
	( - )	(-1.5)	(-3.4)	( -5.6)	( -4.3)	(-3.1)	(-0.5)	( 3.2)	( 3.5)	( 4.7)	
소비자물가지수	104.8	109.7	112.8	111.6	112.7	113.3	113.5	114.6	115.6	116.6	
	( - )	( 4.7)	( 2.8)	( 3.9)	( 2.8)	( 2.0)	( 2.4)	( 2.7)	( 2.6)	( 2.9)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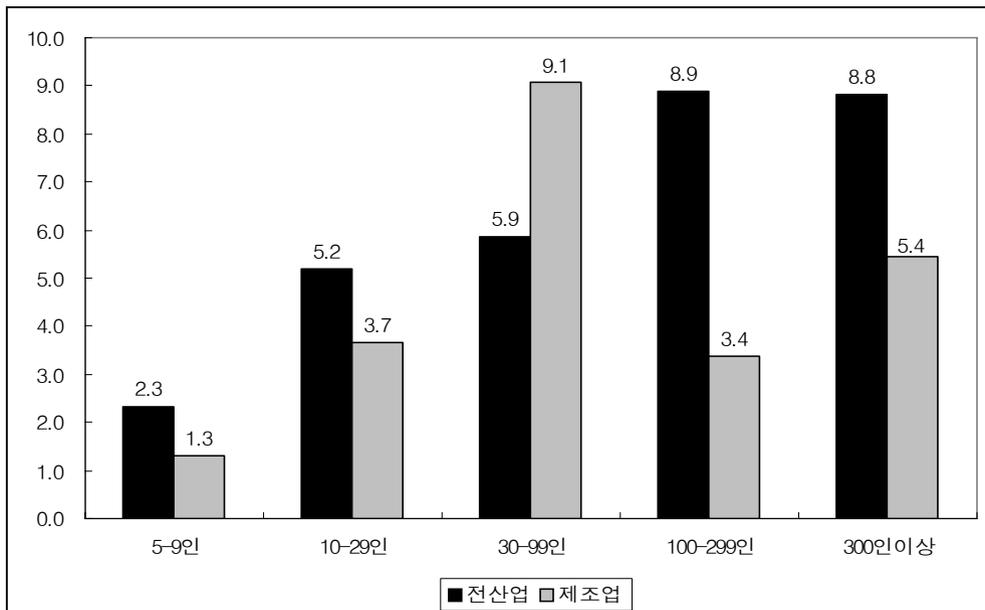
(단위: %)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림 8] 규모별 임금상승률(2010년 3/4분기)

(단위: %)



자료: 노동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 실질임금은 4.7% 상승함.
  - 2010년 3/4분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한 5인 이상 사업체의 실질임금은 4.7%의 상승률을 기록
- 대규모 사업체에서 높은 임금상승률 주도
  - 2010년 3/4분기 전체 산업의 규모별 임금상승률은 5~9인 2.3%, 10~29인 5.2%, 30~99인 5.9%, 100~299인 8.9%, 300인 이상 8.8%를 기록하여 대체로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상승세가 크게 나타남.
  - 제조업에서는 중간규모의 임금상승률이 두드러졌는데, 5~9인 규모의 임금상승률은 1.3%, 300인 이상은 5.4%인데 반해 30~99인 규모에서는 9.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함.

(강승복,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동향

### ◆ 노사분규 발생주이

- 2010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76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0년 11월 24일 기준)는 455,934일로 집계됨.

〈표 7〉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0. 1. 1~2010. 11. 30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76	116	-34.5
종 결	66	108	-
진 행	10(2)	8	(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455,934	553,832	-17.7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11월 24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는 11월 18일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 및 탄력적 근로단위기간 확대, 연차 휴가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개정이유: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 제고 및 근로자의 일과 삶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현재 활용이 저조한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연차 유급휴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 시점 조기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안 제51조): 현행은 취업규칙으로 도입하는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노사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량의 변화가 2주보다 큰 경우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분기별로 업무량 변화가 큰 업무 등에서는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활용이 곤란하여 현장에서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계절적 요인에 따라 분기별로 업무량 변동이 있는 업무 등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탄력적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함.
    - 나.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안 제57조): 2004년 7월부터 노사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임. 이에 현행 보상휴가제를 보완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 또는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저축계좌에 저축하였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휴가로 계좌에서 꺼내어 사용하거나, 이와 반대로 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 연장근로 등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함.
    - 다. 연차 유급휴가제도의 개선(안 제60조): 연차 유급휴가가 일정기간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8할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는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근로자에 게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 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시점 조기화(안 제61조): 현행은 사용자가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근로자별로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시기를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를 취한 경우에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의무가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연차 유급휴가의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고 연말에 휴가사용이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연차휴가의 활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시기를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 청구권 행사기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김.

- 고용노동부의 근기법 개정안에 대해 양대 노총은 성명을 통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함.
  - 한국노총은 근로시간저축휴가제도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의 초과근로에도 할증임금을 주지 않고 작업물량이 적을 때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근로소득 감소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함.
  - 민주노총은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노동시간을 유연화시켜 임금을 축소시키고 고용불안정을 부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함.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3개 지회: 울산·아산·전주공장지회)**

- 11월 30일(화) 울산지회, 11월 15일부터 파업(918명) 및 울산1공장 점거농성(480여명) 계속
  - 울산지회 조합원 300명이 2공장 생산라인 점거 → 09:00경 현대차는 관리직 800여명을 동원하여 전원 2공장 밖으로 퇴거조치하고, 37명을 울산동부서에 인계(25명 조사후 석방, 12명 조사중)
  - 11월 30일(화) 아산지회(142명 4시간 파업) 및 전주지회(334명 6~8시간 파업)에서도 파업동참
- 그간 노조는 7월 22일 대법판결 이후 10월 6일~11월 5일까지 4차례 임단협 교섭요구를 현대차가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11월 5일 중노위에 조정신청
  - 11월 11일~11월 12일 지회별 파업 찬반투표, 각 가결(울산 76.3%, 아산 80.0%, 전주 86.7% 찬성), 11월 15일 중노위 행정지도(조정대상 아님) 결정
  - 11월 15일 울산지회, 현대차 사측이 11월 14일자 폐업한 동성기업(울산공장 시트 사업부 협력업체, 59명<38명>)을 대체한 신규업체와 근로계약 거부한 조합원 30명의 출근을 저지하자 1,190여명 파업 및 울산1공장 점거농성 돌입
  - ※ 11월 20일 16:20경 민주노총 주최 울산공장 앞 집회 도중 현대차 사내하청조합원 1명 분신(안면부 등 2~3도 화상<생명에 지장 없음>, 부산베스티안병원 입원중)
  - ※ 11월 22일 현대차 사측, 11월 22일부터 불법점거중인 울산1공장에 대해 주·야간

- 각 2시간 조업(잔업) 단축키로 결정
- 11월 25일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울산시청에서 회의를 개최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노조 점거사태의 조기해결 촉구 등 내용의 권고문 채택 및 발표
- 11월 26일~11월 27일 금속노조(위원장)·현대차지부(지부장)·사내하청지회(3명)는 현대차에 대한 요구안 및 특별교섭단 구성 등에 합의
- ※ 요구안: ▲교섭개최 관련: ① 현대차에 특별교섭 개최 및 창구 개설 ② 특별교섭단 구성(금속노조·현대차지부·사내하청 3개 지회) ▲교섭의제 관련: ① 농성장의 비정규직 고소고발, 손해배상, 치료비 등을 해결 ② 금번 농성자의 고용 보장(울산, 전주, 아산) ③ 사내하청지회 지도부의 사내 신변보장 ④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
- 11월 28일 현대차지부, 현대차 사측에 요구안 전달 → 현대차 사측, 지부 요청에 대한 회신문서 전달
- ※ 사측 회신 주요내용: ▲협의개시를 위해서는 우선 점거농성 해제 및 생산 정상화가 선행되어야 함 ▲‘교섭’보다는 ‘협의’가 적합하며, 현대차는 사내하청 조합원들과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하청업체가 참여하여 협의주체는 4자(현대차, 현대차지부, 하청업체, 하청지회)로 구성 등
- 11월 29일 현대차지부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사내하청 3개 지회 투쟁지원을 위한 ‘12월 초 금속노조 총파업’ 참가여부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기로 결정(일정 미정)
- 11월 29일 울산동부경찰서는 울산지검에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지회장 이상수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해 체포영장(업무방해 등 혐의) 신청
- ※ 체포영장 피신청자(7명): 지회장 이상수, 수석부지회장 노덕우, 사무국장 최정민, 1공장 대표 김성욱, 2공장 대표 이진환, 4공장 대표 황호기, 시트2부 대표 박영현
- ※ 현대차의 손해청구·고소 현황(11.30 현재)
  - ▲손배: 99명(중복인원 제외), 총 132억 원(11.16 90억 원, 11.18·11.19 각 10억 원, 11.24 2억 원, 11.30 20억 원)
  - ▲고소: 85명(중복인원 제외), 불법점거 및 불법파업 등 업무방해 혐의

◆ 금속노조

- 12월 1일(수)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조인식(14:00, 금속노조 회의실) 후 중앙쟁대위를 개최, 현대차 사내하청 투쟁지원 총파업 논의(현대차 사내하청노조 지원을 위한 투쟁계획 확정)

- ※ 투쟁계획 : ▲12월 3일(금) 잔업거부 ▲12월 8일(수) 전체 노조간부 파업 및 울산집회 ▲12월 8일(수)까지 성과가 없을 시 당일 쟁대위(울산 개최)에서 총파업 일정 결정 ▲지난 11월 27일 3자(금속노조·현대차지부·현대차 사내하청지회) 합의한 교섭방침을 재확인하고 현대차 사측에 교섭 요청
- 그간 10월 19일 노사, 2010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 → 11월 16일~11월 18일 노조,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 11월 23일 노조, 가결 (83.3% 찬성) 발표
- ※ 잠정합의 주요내용 : ▲금속산업 최저임금: 시급 4,400원(현행 4,200원 대비 4.76% 인상)과 월 1,015,000원(현행 978,000원 대비 3.78% 인상) 중 높은 금액 적용 ▲고용창출 요구: 비정규직 및 청년고용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사협력 명시 ▲노조, 사내하도급 제한 요구 철회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와 관련한 내용은 노사합의를 준수하도록 함 등
- 11월 22일 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75.3%(출석 대의원 401명 중 302명) 찬성으로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투쟁지원 총파업(총력투쟁) 결의
- ※ 결의 주요내용 : ▲구사대와 공권력 투입시 즉시 총파업 돌입, ▲11월 30일까지 현대차 사측이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12월 초 1차 총파업(총파업 날짜는 12.1 중앙쟁대위에 위임)
- 11월 24일 노조, 현대차 사내하청노조 투쟁지원을 위해 확대간부 2~8시간 파업 (17개사 1,439명<기존 파업중인 4개사 1,290명 포함>) → 15:00~18:15 3,000여명,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개최
- 11월 27일 금속노조 조합원 등 3,500여명, 14:30 울산 태화강역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참가후, 17:10~17:50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 집회 개최

◆ 발전노조

- 11월 29일(월) 노사 23차 실무교섭 → 노조 1개항·사측 8개항 추가 단협안 제시하고 (쟁점사항 30개항 → 39개항으로 증가), 단협 93개항 합의(누계 100개항)
- ※ 139개항(142개항 중 부칙 3개항 제외) 중 100개항 합의, 인사·경영권 침해조항 등 39개항 미합의 상태
- 노사 각 2명으로 실무소위원회를 구성, 미합의 39개항 논의 예정(교섭일정은 간사간 협의로 결정)
- ※ <노사> 주요쟁점 : ▲발전5사별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40,000시간(20명) <전체 조합원수 기준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 16,000시간(8명)>
- ※ 기존 전임자: 단협상 13명, 실제 12명 → 2명 업무복귀, 10명 미복귀중 ▲주요 불

건전 노사관행·인사경영권 침해 등 39개항(노사, 수정·삭제 여부 논의중)

- ※ 주요 불건전 노사관행·인사경영권 침해조항: ▲조합간부 인사시 노조와 사전협의 ▲업무상 조합원 이동시 노조와 사전협의 ▲근무평가 및 공개는 노사간 협의 시행 ▲발전회사간 인력교류시 노조와 사전협의 ▲정원 등 중대 변경시 노조와 협의후 시행 등

- 그간 노사는 2008년 7월 29일 임단협 교섭 상전례 이후 2008년 12월 16일 임금협약은 타결(3% 인상)하였으나, 단체협약은 2009년에 재개기로 합의('09.2.4 단체교섭 재개)
  - ※ 노조는 9월 17일~9월 24일 파업 찬반투표 가결(52.2% 찬성), 10월 13일 조정신청 (10.27 조정중지)
    - 2009년 11월 2일~11월 5일 노조간부 87명 파업, 11월 6일 조합원 986명 파업, 11월 18일~11월 26일 지부장 해임 관련 노사간 갈등중인 남동발전 소속 영흥화력 지부 파업(11명~39명)
    - 11월 4일 사측, 노조에 단협해지 통고('10.5.5 해지 발효) → 2010년 4월 14일 경영·인사권 침해소지 조항 등 총 137개 조항 개정 요구
    - 2010년 5월 6일 사측, 전임자(12명 중 미복귀 10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5.10자), 5월 25일부터 체크오프 중단, 6월 3일부터 노조사무실에 제공하던 전화 및 팩스 사용 금지 조치
    - 10월 5일 노사 21차 실무교섭 개최, 사측 단협안 중 5개 조항 의견접근
    - 11월 18일~11월 23일 동서발전본부, 『발전노조 탈퇴 및 기업별노조 설립을 위한 총회(찬반투표)』 개최 → 40.7% 찬성으로 부결

#### ◆ 경북대병원

- 11월 26일(금) 14:00~11월 27일(토) 01:45 노사는 27차 본교섭에서 2010년 임단협 잠정합의
  - 11월 27일(토) 07:30부터 노조는 업무복귀(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일정 미정)
    - ※ 잠정합의 주요내용: ▲임금: 동결 ▲격려금: 기본급 30%+30만 원 ▲근로시간면제: 현재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8,000시간(풀타임 4명), 2011년 6월 1일 이후 조합원수가 1,000명 이상 유지될 경우 10,000시간(풀타임 5명) 인정
    - ※ 기존 전임자수 4명, 고시한도 10,000시간(풀타임 5명), ▲이사회에 간호사 5명 총원 안건 상정 ▲칠곡병원 개원 이후 업무축소로 외래인력변동 발생시 기존부서 업무 및 인력축소 범위 등을 노조와 협의

- 그간 노조는 8월 12일~10월 27일 10차례 임단협 교섭이 진전없자 11월 2일 경북지 노위에 조정신청, 11월 8일~11월 10일 파업 찬반투표, 가결(69.7% 찬성)
  - 11월 17일 조정불성립(노사 모두 경북지노위 조정안 거부)
  - ※ 조정안: ▲임금은 동결하되, 격려금으로 기본급 30%+50만 원 지급 ▲본 임금협약 유효기간은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로 함 ▲적정인력 확보 등 단협 미 합의사항은 추후 노사가 협의하여 정함
  - 11월 18일 노조는 임금 인상, 칠곡병원 개원(12.6 예정) 관련 병원측의 보조인력 직접채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 돌입
  - 11월 25일 노사교섭 개최, 사측, 노조가 임금 및 근로시간면제한도에 대해 양보하지 않자, 칠곡병원 개원 관련 외주화 방침 철회(11.23) 입장을 번복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제안 → 노조, 사측 제안에 반발하며 퇴장
  - ※ 노<사> 주요쟁점
    - 가. 임금: ▲총액 대비 4.2% 인상 <임금은 동결하되, 격려금(기본급 30%+30만 원) 지급>
    - 나. 근로시간면제한도: ▲10,000시간(풀타임 5명) <8,000시간(풀타임 4명)>
    - 다. 단협: ▲적정인력(간호사 14명) 확보 <교과부 승인사항으로 불가>
    - 라. 기타: ▲수용불가(칠곡병원 개원후 단계적 전원) <본원 직원 133명, 칠곡병원 원전 전원> **KL**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